
**미얀마개발연구원(MDI)
공동연구주제 조율 및 신정부 관계자 면담
출장복명서
[2016.5.1.-5.11]**

2016. 5

I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을 위해 공동연구 주제(농업 및 금융) 조율 및 신정부 관계자 면담을 위해 본 출장을 기획함.

□ 출장자(총 2명)

#	성명	직위 및 직위	역할	출장기간
1	남상우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축탁연구위원	사업PM	5.1~5.11
2	김윤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원	사업관리	5.1~5.11

II 주요 면담 및 회의 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 현지면담 논의사항

(1) KOICA 부소장 면담

- 일시: 5월2일(월), 10:30-12:00
- 장소: KOICA 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근오, 김태영 (이상 KDI), 오세익(전 농어촌공사), 최공필(금융연구원), 장성호(녹색지구) 문상원, 김혜원, 배도찬, Estehr(이상 KOICA)
- 주요논의내용
 - 초청연수 기획 관련
 - MOPF 측 (Permanent Secretary, Tun Tun Naing) 에서는 5월 중에 KSP 행사가 있기 때문에, 6월 중 연수를 기획해줄 것을 요청함.

- (남상우) 신정부 출범 후, MDI 신규 CEO 임명 이후, 초청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 MOPF 측에서는 6월~8월 말까지 공무원 연수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초청연수 참가는, 8월 말 이후에 가능함. 참고로 KSP 예산으로 집행할 초청연수는 예산사용가능기한이 9월 중순까지임에 따라 9월 초에는 실시되어야 함.)
- KOICA-MDI 스콜라십 관련
 - KDIS 측에서 1차 심사 후, MOPF 측에 심사결과를 전달할 예정임.
 - 작년에는 MNPED가 평가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MNPED 측에서 컴플레인을 하였음. 금년에는 MOPF가 최종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결론적으로 2016 스콜라십 선발과정은 공개경쟁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최종 선발결과를 MOPF측에 전달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됨. MOPF 측에 전달 후, 최종 정부승인은 1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MDI 거버넌스 관련
 - MOPF PS에 따르면, MDI 관련 사항은 대통령실에서 총괄하고 있음.
 - KOICA 측에서는 5월3째주 중에, MOPF 측 장관이 배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자 함.
- 공동연구 관련
 - (거버넌스) 거버넌스 연구주제는 행정개혁 및 경제개발전략을 포함할 예정임.
 - KOICA 측에서는 공동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Dr. Zaw Oo보다는 정부 관계자와 협의해가며, KDI 측에서 연구주제를 정부 측에 먼저 제안해줄 것을 요청함.
 - (농업) KOICA 측에서는 신정부 농업정책 (농업금융: 농협모델, 농기계/농자재 지원정책(supply chain), 농촌지도)을 MDI 측에서 big picture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 동시에 KOICA 및 EXIM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한 연구주제 발굴을 요청함.
 - (농업) 비료지원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과 (20-30% 생산량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그러나 비료지원사업은 다수 공여기관 및 미얀마 정부 측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 따라, MDI 연구사업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오세익) 2차5개년개발계획에는 비료생산 및 배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함. 따라서 농민들이 양질의 비료를 적기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한 주제일 수 있음.
- (문상원) MDI 농업연구 주제로는 쌀 생산량 증대 이후, post harvest strategy를 제안하는 수준이 적당할 것임. 관개시설 개선 및 토양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은 세부사업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농업관개시설 개선 이전에, 관개시설개선 방향성을 농경제적 관점 및 거시적 관점(도시개발, 수출전략, 인구이동 등)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공동연구가 유용할 것임. 현재 농어촌공사와 농업관개부가 함께 추진 중인 ‘이야와디 델타 지역 관개시설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450만불)’은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없이 관개시설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음.
- (금융) 농업개발 및 스마트빌리지 설립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선순환 모델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 MDI를 통해 기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싱 접근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음. 가령, 새마을운동 100개 시범마을과 연계해서 P2P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100개 마을은 이미 인구조사, 농가소득, 생산량 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후 사업개발 가능함.

(2) MDI 공동연구진 및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면담

- 일시: 5월2일(월), 14:30-18:00
- 장소: 양곤 Novotel 회의장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근오, 김태영 (이상 KDI),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오영인(농어촌공사), 최공필(금융연구원), 장성호(녹색지구PD), 손승호 소장, 김유신 부소장(수출입은행), 문상원, 김혜원, 배도찬 (이상 KOICA)
- 주요논의내용
 - 연구방향 관련
 - (연구주제선정) 6월까지 미얀마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수출입은행 입장을 고려 시, 에야와디 연구는 물리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미 기초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 편라인 사업에 농업 경제 부문만 보강하여 F/S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KOICA에 의견 전달*
 - (편라인강 유역 연구) KRC의 농업전문가, 농업경제학자, 오세익 원장과 함께 투입해 공동연구 진행는 것에 대해 KOICA의 의견 문의
 - * 에야와디와 연구와 편라인 연구 두 주제를 MDI 과제 성격으로 동시에 추진하며 F/S 신청은 편라인강 사업으로 신청
 - 농업분야 연구주제 선정(참석자 전원)
 - (KOICA 문상원 부소장) 편라인 사업 연구는 우선 MDI의 성격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동 연구를 MDI가 진행 시, 수원국 수요를 반영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따라서 MDI 연구주제로 추진하기 보다는 KRC와 수은에서 별도의 용역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제안.
 - (남상우 PM) KDI의 경우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보다 정책연구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나 금번 연구는 Post-flood landslide recovery의 일환으로 과거 Development Partner들이 진행했던 사업과는 달리 어떠한 모형의 제시라는 측면이 강함. 더불어 아직 비교대상이 없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동 과제가 MDI의 첫 사업으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움.

- (KOICA 문상원 부소장) 만약 편라인강 사업이 나라 전체의 재해예방, 보건력 증진 등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환의 사업으로 접근을 한다면 MDI 성격과 일치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접근은 MDI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재해복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구주제는 네덜란드, 월드뱅크, UNDP 등 다른 기관들에서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움.
- (남상우 PM) 동 연구주제는 ODA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다른 donor들이 하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임을 강조.
- (KOICA 문상원 부소장) 본 연구가 시범적인 사업 모델인지,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세익 원장님과 남상우 원장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상우 PM) 단순히 정책이슈에만 연구 초점을 맞추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 에야와디 또는 편라인강 사업진행 등과 같은 구체화 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음. 본 주제는 예비타당성적인 성격 + 정책 +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잘 조화된 일종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임.
- (KOICA 문상원 부소장) 에야와디 델타는 미얀마 농업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편라인강 지역을 에야와디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더군다나 아직 신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연구주제 선정은 향후 MDI의 status나 business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함. 편라인강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MDI연구가 아니라 별개의 연구로 진행하기를 재차 요청.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MDI가 진행하는 첫 번째 연구과제로서 너무 site-specific한 주제는 MDI의 성격상 또는 첫 번째 과제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

- (KOICA 문상원 부소장) 일반적으로 연구 진행 → 연구주제의 정책화 →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도출 → EDCF차관 또는 KOICA 사업으로 진행을 연계하는게 올바른 순서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먼저 제시가 되고, 상위 정책이 후속 작업으로 나오는 등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 (남상우 PM) 본 연구가 프로젝트 페이퍼에 그친다면 적합하지가 않겠지만, 이 연구가 미얀마 농업 발전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줘 다른 donor들이나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얘기가 될 수 있다면 Project-specific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 (KOICA 문상원 부소장) 앞서 언급했듯이 정책이 먼저 나오고 프로젝트가 나오는게 순서인데, 그 반대 순서로 진행했을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이 도출되는 게 어려울 거 같다는 게 KOICA의 의견임. 편라잉 사업 연구가 큰 상위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거라면 MDI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경지정리 솔루션과 같은 미시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려 표명
- (남상우 PM) 이 연구는 기계화, 기술, 농업 금융 등 농업 발전의 중요한 이슈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가능한 정책 옵션들 중 구체적으로 사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연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 더불어 KDI 초창기 때도 칠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어 본 연구가 MDI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 사업의 feasibility만 따지는 것보다 MDI의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본 연구 진행시 주민들 혜택에 대하여 현실적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로 발전되길 희망함.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현재 편라인강은 토목부분만 자세히 다뤄져 있고, 농경제의 시각이(i.e.농민들의 소득 증진) 부족함.

- 즉 농민들의 소득 증진과 같은 농경제의 perspective를 보강해 F/S 신청 전 단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여 수출입은행에게 전달하면 미얀마 정부와의 협의가 용이할 것임.
- (김혜원 부소장) 수원국에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편라인 유역개발사업을 아직까지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함.
 - (수출입은행 손승호 소장) 수출입은행 측 입장은 첫째, 예야와디 전체 마스터플랜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중간협의가 되어 단위사업이 발굴되어 EDCF차관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희망함. 둘째, 농업분야 차관신청은 기존에 진행된 선례를 고려 시, 통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금일 논의된 편라인 사업은 상업지구, 도시개발 등 여타 상업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 시료됨. 또한 수출입은행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의 개연성, 한국 ODA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기존 농업 프로젝트보다 우수함.
- * 농업, 보건, 의료, 교육은 통상적으로 무상원조로 진행
- (KOICA 문상원 부소장)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싱크탱크 본연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보이는 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MDI라는 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스러움. 미얀마 정부에서 해당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제시한다면 KOICA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그러나 **가능하면 상위적인 정책개념이나 방향을 먼저 잡아주었으면 하는게 KOICA의 희망사항임.**
 - (남상우 PM) 그동안 상위적인 개념의 정책연구는 무수히 많았는데 구체화된 하위의 연구가 없었다는 부분이 미얀마 정부의 생각이었음. 일례로 상무부에서 수출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는데, 하위 단계의 구체화된 연구 요청사례도 있었으며, NLD 관계자들도 농업기술을 조속히 발전시켜 수출로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상위적인 정책 프레임보다 구체적인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
 - (KOICA 문상원 부소장) 편라인 강 사업이 양곤의 도시농업발전, 가치

사슬 중대 등 큰 틀의 정책하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면 KOICA입장에서도 환영임. 즉 상위의 정책개발 개념과 그 하위의 개념이 같이 수립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하위의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상위의 정책개발 계획 개념도 같이 수립해주기를 희망함*.

- * 신정부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게 급선무이고 하위의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진행시에는 상위 정책 프레임도 반드시 제시해줄 것을 강조함.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부소장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첫 번째 메인 프로젝트로 미얀마 정부의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제를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실용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를 편라인에서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KOICA 문상원 부소장) 거듭 말씀 드린 부분의 예시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농업정책이라는 큰 틀 하에 “인구가 늘어나는 양곤의 사정을 감안하여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 그리고 도시농업정책의 차원에서 편라인 강 사업, RPC, 도매시장,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주기를 희망.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도출이 되었다면, 큰 틀도 같이 잡아준다면 KOICA의 입장에서라도 환영임.
- (오세익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편라인 강 사업 목적이 도시 근교농업을 농민 소득증진 방안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연구 진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MDI의 이름으로 하나는 상대적으로 긴 과제로 진행하고 하나는 단기과제로 진행해도 무방한 거 같음.

(4) MDRI 연구진 면담 I

- 일시: 5월4일(수), 12:00-15:00
- 장소: 양곤 Fuji Restaurant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Dr. Tin Maung Than(MDRI)
- 주요논의내용
 - MDRI에서는 IGC (international growth center in the MDRI)를 비롯한 다양한 센터를 설립 중임. 지역개발을 위해 Community Development Center도 설립하고 있으며, 지역정부가 싱크탱크에 대한 필요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TMT) U Wen Thein (NLD #2, advisory committee for the NLD, 공식지책은 없음)과 컨택해서 MDI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을 제안함.
 - Secretary Council에는 3:2(USDP:NLD)로 구성되어 있어서, 군부가 국회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
 - TMT는 MDI IGC, U.S AID Nathan Foundation과 KDI가 협력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제안함.
 - 지역개발 관련
 - 만달레이 개발 관련, USAID 예산지원으로 Concept paper는 완성되었음.
 - 공동연구 주제 관련'
 - (TMT) U Soe Win이 MDI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식적으로는 Ministry of Education Permanent Secretary와 컨택할 것을 제안함.
 - (남) 향후 MDI의 역할 고려 시, (1) 대통령실 산하에 위치하여 정책지원 업무 담당, (2) MOPF하에서 기존 역할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TMT) 미얀마 이해관계기관(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은 MDI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KDI 명의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가령, 만달레이 지방정부 예산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것임.
 - 농업, 교통, 국방부 세 명 모두 친밀한 사이이며, 수확전공자로서 계량분석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있음. 가령, 교통부에는 계량분석역량이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동 수요를 반영하여 KDI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음.

- (남) 미얀마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서 싱크탱크 수립 필요성에 대해 미얀마 및 국제언론에 기고문을 낼 아이디어를 제안함. (가령 U Tin Naing Thein이 미얀마 언론에 기고할 수 있음,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아웅산 수치와 가까운 인물)이 기고하는 것이 효과적임.)
- (남) 지역개발을 조율하는 메커니즘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TMT는 만달레이에서 향후 진행가능할 수 있다고 함. 지방정부는 정책방침이 부재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는 행정업무처리임.
- (TMT)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TMT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이어서 KOICA-KDI 명의 프로젝트(농업, poverty reduction 관련, 3개월 예상)로 진행해줄 것을 제안함. KDI 연구진이 참여하여 자료수집 및 계량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에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5) MDRI 연구진 면담 II

- 일시: 5월4일(수), 16:00-13:00
- 장소: Novotel 회의장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이상 KDI), Win Min, Ngu Wah Win(MDRI)
- 주요논의내용
 - (WM) MDRI-CESD 신정부 하에서도 독립적인 리서치를 지속할 것임. NLD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NLD측과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해오나, MDRI-CESD 그룹으로 일할 것을 고수함에 따라, 참여하지 않음.
 - (WM) NLD 출신 장관들은 ideologically sincere하나, 사안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부족함. EITI 관련 사안(MDRI에서 주도한 리서치)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런 상황 하에서 국책싱크탱크의 필요성이 부각됨.
 - (WM) MDI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NDL 측 핵심인사들과 컨택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신정부 MOPF 역시 강력한 정책 및 예산 조정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임.
 - 신정부는 경제개발보다는 군부와 경쟁해서 권력확립작업(내부정치, peace reconciliation & rule of law)이 우선순위가 때문에, 경제개발은 후순위로 밀려남. MDI 거버넌스 결정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밖에없다고 함.
 - Public Admin Reform 주제는 NLD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임. 가령 신정부 하에서 차관직을 폐지했으나, 동 역할을 대체할 직위가 부재함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MDI 거버넌스 연구주제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정책제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Ngu Wah Win) MOPF 장관인 U Kyaw Win은 MDRI로부터 Policy Brief 요청이 있었음. 신정부에서도 MDRI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
 - 현 정권은 정부지출을 줄이려고 하나, 개도국 입장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함을 고려 시, NLD정권의 경제정책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아웅산 수지는 측근으로부터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임.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모두 아웅산 수치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음에 따라 정책실행이 지연되고 있음.

(6) MDI CEO 면담

- 일시: 5월5일(목), 18:00-20:00
- 장소: 양곤 NOVOTEL 회의장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근오(이상 KDI), 오세익(전 농촌경제연구원장), Dr. Zaw Oo (MDI CEO)
- 주요논의내용
 - 농업주제 관련
 - (남) KOICA가 진행하는 이아와디 델타지역 개발 및 EXIM-KRC가 담당하는 빼떼인 지역개발 사업을 소개함. 동 2개 주제를 MDI 연구주제와 연계할 방안 모색할 수 있음.
 - (Z) MDRI는 Local Value Chain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MDI 연구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Z) (농업기계화 관련)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렌탈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를 마이크로파이낸싱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노동비 증가 및 농촌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계화는 필수적임.
 - (남) 소규모 농업기계 제조/조립 산업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오) 현재 미얀마에는 로컬 농기계제조업체가 부재함. 이에 한중일 농업 기계생산업체와 JV를 만들어서 내수생산을 할 것을 제안함. 이는 기술 전수와 역량강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Z) 미얀마에 유통되는 중국산 기계들은 resilient하지 않아서, 현지에서 내수생산할 수요가 있음.
 - (Z) 에야와디 델타지역에는 강이 많으나, 동 지역 농지에는 빗물만을 사용하며, 강물을 이용한 관개시설은 열악함.
 - Post-harvest management: 습하고 건조한 날씨가 반복됨에 따라 쌀에 균열이 생겨서 부서짐. 미얀마 쌀 수출가격은 주변국 쌀가격 대비 50%수준임.
 - 현재 농업부 장관은 이아와디 델타지역은 쌀생산에 집중할 것임.

- (미얀마 고무산업 관련)
 - (Z) 미얀마에는 고무 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제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음. (MDRI-CESD에서는 동 주제로 연구주제 진행 중)
 - 미얀마 고무산업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며, 내수 고무산업이 발전하면 태국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복귀할 수 있을 것임.
- (Z) 미얀마정부는 쌀생산량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지내 쌀 이외 기타작물 재배 시, 허가가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쌀생산지원에 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기타작물재배는 장려하고 있지 않음.
- MDI 설립 진행관련
 - (Z) 현재 전환시점에서 MDI의 활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아웅산수치에게 MDI 필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Z) 아웅산수지는 peace bulding에 집중하며 관련 컨퍼런스들을 준비중 임.
 - (Z)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정부가 reality check 및 priority를 정하는 시간이 요구됨. 이 기간동안, sub-national level(regional level)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TMT는 만달레이 지방정부와 리서치 진행 중임. 조우는 몬 스테이트와 리서치 중(rubber etc.))

(7)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Deputy Director General (FERD) 면담

- 일시: 5월9일(월), 09:30-10:30
- 장소: 네피도 MOPF (building #1) 회의장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오순상(KOICA), Cho Cho Wynn (DDG, FERD)
- 주요논의내용
 - (Cho) 신정부가 추진 중인 100 day plan은 주별로 점점하며, FERD는 지역 사무소를 통해 전국 development partners 프로젝트들을 통합관리하고자 함.
 - 이전 정부에서는 Executive committee에서 담당하며 DG/DGG급 이상에서 참여하였으나, 신정부에서는 미정임. 현재 MOPF에는 2명의 PS가 있으며,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MOPF 장관은 부총리급 역할을 하고 있음. 100 days plan 관련, 4월부터 6월까지 정책 뼈대를 설계하고, 통합하려는 준비하는 것임. (5월27일에 Maung Maung Win이 Deputy Minister로 임명됨.)
 - (2차5개년개발관련) 이전 국회에서도 NLD 멤버들이 참여하여서 2차5개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서는 NLD 관계자와 논의하는 것이 수월할 것임.
 - (은행관리) CBM은 민간은행만 관리하며, MOPF에서 정부은행들을 관리하고 있음.
 - (MOPF 통합관련) 1 Ministry는 1 Principal 하에 3-5명의 DG를 확보함에 따라, 현재 MOPF내에서도 인력조정이 있을 것임.
 - (NLD manifesto 관련) NLD에서는 정부투자증대, FDI 농업투자증대를 강조하였으나, 동 매니페스토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던 바임. DDG도 언론에 소개된 개략적인 NLD 매니페스토만 파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
 - Planning Committee는 MOPF 산하에 위치하며,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를 하고 있음. 신정부는 대통령실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임. 대부분의 위원회는 이전정부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운영될 것임.
 - (MDO relocation) MDI가 Presidential Notification로 구성된 위원회 CEO (U Aung Tun Thet과 Dr. Zaw Oo)는 신정부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불분명함.

(8)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Deputy Director General (Planning Dept) 면담

- 일시: 5월9일(월), 10:30-11:30
- 장소: 네피도 MOPF (building #1) 회의장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오순상(KOICA), Daw Thway Thway Chit (DDG, Planning Dept)
- 주요논의내용
 - 스콜라십은 2개 프로세스가 있음. (1) FERD를 통해서 HRD Committee에서 관리함. (2) FERD에 공지하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여 부처에 통지하는 방식임. MOPF는 동 공지를 수령하였으며, 부처에 공지하였음.
 - (DTTC) 네피도 인터뷰(석박사)는 MOE MDI 사무소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공무원 지원자들은 부처에서 추천서 받으며 이미 필터링이 된 지원자들임. 따라서 FERD의 추가 필터링은 문제없을 것임.
 - (2차5개년개발계획) NLD 매니페스토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입안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not sure how to translate NLD manifest to national policy)
 - * Planning Commission (chaired by the President, memembered by 21 ministries, 참관인 포함 약 40여명 참여)
 -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안에 정부부처 및 위원회 통폐합이 완료될 것임.

(9)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Deputy Director General (FERD)면담

- 일시: 5월9일(월), 14:00-14:30
- 장소: 네피도 MOPF (building #1) DDG 사무실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오순상(KOICA), U Myo Myn (FERD DDG)
- 주요논의내용
 - (MDI 부지관련) NDC에 보고되었으며, construction approval을 받기 위해 1달 정도 소요될 예정임.
 - (스콜라십 인터뷰 장소) FERD DG에 따르면, KOICA-MDI 스콜라십 인터뷰는 힐튼 호텔 및 MDI 사무소 등 외부시설에서 하는 것을 제안함.
 - (스콜라십 최종 승인기간) (Myo) 최종리스트에 포함된 30명 공무원 후보자들은 이미 각 부처에서 추천장을 받아 필터링된 후보자들임. KDIS 측에서 최종 후보자 12명 + 3명(대기자)를 선발한 후, MOPF측에 선발자 목록을 전달하면 1달 정도 승인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미얀마 정부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허가가 용이함.
 - (초청연수) 초청연수 영문 표기시에는 Workshop으로만 표기해야 미얀마 정부내 처리절차가 수월함. MOPF 관계자(1 PS + 1 Deputy PS + 13 DG/DDG, 2개 스케줄 제안(6월 중순 or 7월 초) 위주로 초청연수를 기획하고 있으며, 부처 별 고위급 관계자 선별해줄 것을 요청함. 이와 관련한 컨셉노트를 전달할 예정임. (선호주제: SME, Private sector development)
- ※ 동 연수는 KSP 추가예산으로 집행하며, 연수 조율 창구로서는 Myo Myn (mmkw24@gmail.com, MOPF FERD DDG)이 담당할 것임.

(10) 네피도 KOICA 자문관 면담

- 일시: 5월9일(월), 18:00-20:00
- 장소: 네피도 Fook Man Lau 레스토랑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윤기호, 장동일, 최학재, 백영빈, 이용태, 조용길, 오순상, 최이슬(이상 KOICA)
- 주요논의내용
 - (농업) 농업저장시설(냉동 및 저장시설)만을 설립해도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쌀은 중국으로 90%이상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밀수출임. 이외 농산품 수출은 품질 고려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하기 어려움. 현지 도정공장들은 1960년대 한국 기술 수준이라서 broken rice 발생비율이 높으며, 수출용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동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수출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음.
 - (농업) 열대과일의 경우, 승인절차 고려 시, 3-8년 소요됨. 망고 냉동 시, 검역없이, 신속히 수출가능.
 - (제조업) 전력공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조업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음. 전력공급 안정성이 산업발달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
 - (투자) LDC국가로서 ODA 유치가 활발함에 따라 FDI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함. ODA 및 EDCF 관리에 공무원들 업무가 집중됨.
 - (행정) 정부부처간 전자문서 공유 시스템도 부재함. 현재까지도 하드카피로 부처간 공문서 교환 중임.
 - (투자) 국영투자법, 미얀마시민투자법 및 외국인 투자법, 3개가 존재함. 영문본은 미발표.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에서 직접자본 없이 주로 토지만을 제공하며 JV를 집행하고자 함. 대부분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해당부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농업기계화) 기계화 추진이 더딘 이유는, 기계부족이 아니라, 운영인력이 부족함에 기인함. 농민의 가장 큰 수요는 유지보수 역량이나 동 역량을

갖춘 인재집단이 부재함. 기계화 및 유지보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수임.
해외역량강화 프로그램 시에도, 미얀마정부는 재정지원이 전무함.

- (교육) 신정부의 최우선순위 정책은 교육개발임. 이에 따라, 농업기술교육 등을 비롯한 TVET을 강화할 수 있을 기회일 것임. 대동농공업은 2016년 말 조립 및 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함. 그러나 농업부 장관 결제가 지연되고 있음. 장관은 합작투자(5:5)를 요청하고 있음. 투자조건이 5:5이나, 미얀마 정부는 토지제공에 한정됨. (Myanmar Investment Council(MIC)가 담당함)
- (FDI 관련) FDI가 증진되면 해외 로펌 업무가 증가할 것임. 신정부 출범 전에, 로펌에서 인력충원이 있었음. 다만, 로펌들 인력충원이 당분간 중지되었음. 이는 신정부 출범 후에도 FDI를 비롯한 해외투자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신정부 출범 후, 중국/일본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럽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음.

(11) Renaissance insitute 방문

- 일시: 5월10일(화), 14:00-15:00
- 장소: 양곤 Renaissance Institute 오피스
- 참석자: 남상우, 김윤희, (이상 KDI), U Myo Myint, U Soe Win, U Min Khin, Lin Zaw Win
(이상 RI Borad Member 및 Director)
- 주요논의내용
 - (Myo Myint) Financial inclusiveness 및 stabilization of finaicial deficit 정책 연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포함.
 - (MDI 거버넌스, U Soe Win, U Myo Myint) MDI는 MOPF 산하에 위치해야 할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이는 MOPF 장관*(U Kyaw Win) 및 U Hantha Min(전 NLD Econic Committee Member)와 협의해야할 것임. 이를 MOPF Minister 및 Deputy Minister와도 MDI 거버넌스에 대해 논할 수 있도록 U Soe Win이 적극 주선하겠음. U Myo Myint 또한 MDI 안을 U Hantha Min에게 직접 전달하겠음.
 - (농업, U Min Khin) Comprehensive agriculture development masterplan은 필수적이며 많은 다수공여기관들이 다양한 마스터플랜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reliable data (by contacting real ground demand of the people and commuinty)가 부재함. 필드트립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실성있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주기를 요청함.
 - (사회개발, U Myo Myint) 마이크로파이낸싱과 연계한 사회개발에 관심을 표명함.
 - (스콜라십, U Myo Myint) 공무원 역량강화 측면에서 KOICA-MDI 스콜라십에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한 것은 긍정적인임. 신정부에서도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MDI를 통해 네피도에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U Myo Myint) 아웅산 수치는 MDI에 대해 인상적 관심(impressed)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들은 수치에게 MDI 안을 제안할 것임.

- (연수 관련) U Myo Myint, U Soe Win 및 2명을 제외하고 NLD Economic Committee 구성원들은 모두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었음. U Soe Win은 초청연수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RI에 별도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함.
- (U Myo Myint) PPP 관련 한국케이스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였으나, KDI PIMAC 역할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Feasibility Study 기능이 미얀마 PPP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에 대해 공감함. 향후 초청연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PIMAC 역할 및 케이스 스터디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U Myo Myint) Planning Committee 구성에 대해서 현재 RI에서도 논의중이며 RI는 non-partisan perspective로 국정에 접근하고자 함. 향후 RI 역시 중립적으로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U Myo Myint) MDI가 이전정부와 협의해옴에 따라, MDI 내에 있는 이전 정권의 shadow and obstacels가 존재함. 이에 대해 NLD 및 RI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함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 (U Soe Win) U Aung Tun Thet은 U Soe Win과 절친한 사이이며, MDI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음.
- (U Myo Myint) NLD 및 RI는 재정정책연구에 대해서는 MDI/KDI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함.